


DAY
01

오늘성경통독 열왕기하 19장 □ 20장 □ 21장 □ 22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Date / /

말씀 열왕기하 20:12-13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병이 들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15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징표를 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자기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을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여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경험인데, 거기에 더해 해를 뒤로 물리면서까지 약속을 보증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히스기야가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맞이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왕하 20:13)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내보이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져있습니까? 그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수명을 연장해 주시고, 해도 뒤로 물리신 하나님이 빠져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지도 않았고,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보물과 무기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와 같이 재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믿음도 쇠락하고 삶도 쇠퇴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1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눔2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2

오늘성경통독 열왕기하 23장 □ 24장 □ 25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Date / /

말씀 열왕기하 25:8-9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말시다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로 유다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요시아는 온 이스라엘 영토의 우상들을 철폐하고 이전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가장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성경은 요시아를 평가하기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왕하 23:25)라고 평가하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시아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킵니다(왕하 23:22).

그러나 요시아의 그런 믿음의 행진도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그런 믿음의 삶을 기쁘게 바라보시기는 하셨지만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는 않았습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라”(왕하 23:2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므낫세의 시대에 그가 행했던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와 악행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요시아의 믿음의 삶으로도 가라앉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죄는 어떤 선행으로

도 그 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사망, 곧 우리의 생명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선행을 보시면서도 그 격노를 돌이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그 죄로 인하여 멸망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정성껏 지어서 헌물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 성전이 유다의 멸망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용하던 모든 그릇과 기구들 하다못해 손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기고 망가졌습니다. 이 무너져 내린 성전이 곧 죄로 인하여 멸망 당하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만 하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성전이 무너지듯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의 무너짐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고통보다 더 크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이 무너지듯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 1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눔 2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3

오늘성경통독 역대상 1장 □ 2장 □ 3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Date / /

말씀 역대상 1:1-4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벳,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열왕기가 끝나고, 역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바벨론 멸망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의 혼란 기간을 통해서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하시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후손들이 이전과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신앙교육의 교재와 같은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족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첫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후손들이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의 피조물인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 곧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조차 못했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세상에 어떤 것이나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주권도, 우리 삶의 뿌리도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나눔 1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나눔 2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4

오늘성경통독 역대상 4장 □ 5장 □ 6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524장 같 길을 밝히 보이시니

Date / /

말씀 역대상 4:9-10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대상 4: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왜 귀중한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수고로이’라는 단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 ‘오체브’는 “만든 우상,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내가 세상의 우상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곧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낳은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야베스는 어떤 기록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악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서 태어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야베스가 왜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귀중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왜 그가 귀중한 자인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만 생활하면 가정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 가정과 직장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전쟁터를 더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환난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고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것이 가장 큰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베스의 이 기도는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 나눔 1 내가 드리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나눔 2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지역이 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